

인간이 규정한 목적에 따르는 기계 기반의 자동화된 행위자: 인공지능

인공지능은 **강한 인공지능** 과 **약한 인공지능**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인공지능의 부작용: **인공지능의 양면성**

대표적 인공지능 문제 3가지: **자율주행차 책임 소재**, 의료 및 국방 분야의 **윤리적 문제**, **인공지능의 편향성과 인권**

인공지능 관련 대표적 준칙: **아실로마 AI 준칙 p9**

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: **트롤리 딜레마**

선로를 바꾸면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경우: **선로를 바꾸겠다**, 합리적 의사결정 전전두엽

사람을 밀면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경우: **사람은 못 밀겠다**, 정서관여 편도체

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: **공리주의**

살인 절대 금지: 임마누엘 칸트 p21

칸트 피셜 인간의 행위와 결정에 관여하는 이성: 실천이성

칸트 피셜 절대적인 법칙: 정언명령, 정언명법

어떤 것을 하고자하는 의지와 원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: 의지의 격률

칸트와 비슷한 입장: 장자크 루소

인간은 누구나 **자기보존**을 지향

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그러한 배려: 자기애

자기애는 인간에게 내재된 어떤 **근원적** 감정의 움직임인 **정념**

인간에 대한 사랑, 질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발전: **양심**

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루소의 의견: **연민** <> 공자의 측은지심(惻隱之心)

인간이 악한 성향을 가졌다: 토머스 홉스

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: 성악설

대표적 공리주의자: 제러미 벤담

대한민국의 자율주행 원칙 5가지: **투명성, 제어 가능성, 책임성, 안정성, 보안성 p27**

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성: 인공 도덕성

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로봇: 인공적 도덕 행위자, AMA p.29

도덕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(O, X)

인공지능 로봇 설계방식 2 종류: **상향식, 하향식 p30**

아이작 아시모프: 로봇의 3원칙 p31

로봇 3원칙 보완: 로봇의 5원칙 p33

로봇 5원칙의 중요한 가치: 존엄성, 공공선, 사용자의 명령, 제작자의 책임, 목적 밖 사용 책임

인간 도덕성과 인공 도덕성의 관계: p35

이성적 존재만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: 칸트

인공지능과 같은 인공물은 그 자체로 자유가 없고 자유로운 의사의 객체이다

인간의 정신, 마음 의식, 기억 등을 컴퓨터나 기계 또는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송하는 기술: 정신 전송 기술 p86

정신 전송 구현 가능성 기술 2개: 뇌전도 스캔, 자기공명영상 스캔

인간 다음의, 인간 이상의 존재: 포스트 휴먼

사람 위주의 사상: 휴머니즘

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는 권리: 천부 인권

트랜스 휴머니즘이나 포스트 휴머니즘 둘 다 휴머니즘 전제하지만, **탈 휴머니즘 선언**

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이가느이 육체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다

탈 신체화를 통해서 불멸 또는 영생을 추구

정신과 신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해하는 개별적인 실체로서 언제든지 분리 가능하다: 심-신이원론 p.92

정신과 신체는 하나를 주장한 사람: 스피노자

정신과 신체는 하나이다: 심-신일원론 p.94~95

사람은 자신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면서도,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함 p99

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여김

나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부정하겠다는 뜻: **안티에이징**

노년기를 또 다른 성장의 시기로 받아드리는 것: **웰 에이징**

죽음에 대한 태도: **사생(死生)관, 생사(生死)관** p103

우리는 항상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: 메멘토 모리

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 함: 죽음 불안

죽음에 대한 이론: **공포관리 이론** p107

죽음에 대한 방어: 근접 방어, 원격 방어 p107

죽음에 대한 문화적 억제가 죽음에 대한 성찰의 결여 초래: 블랙홀 가설 p108

기술을 통한 사회적 통제: 빅브라더 p115

개개인이 알아차릴 수 없게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: 빅데이터 p117

늘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, 모두 다 본다: 판옵티콘

의 디지털 버전: 전자 판옵티콘 p117~118

민주주의의 핵심 가치: 자유, 평등, 인간존엄성 p119

자유 구분: 소극적 자유, 적극적 자유 p119

인공지능이 민주주의에 끼친 장점 119p 하단

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: 불평등 심화, 사유의 무능

빅데이터를 신봉하고 지시에 따르는 모습: 빅데이터교 p120 하단

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: 에코 챔버

정보의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받아드리는 것: 탈진실

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: 담론 윤리 p123

인공지능의 편향과 차별: p131

데이터 편향성의 종류: 표본 선택 편향, 자동 편향, 내재적 편향 p131~132

사람이 빠져있던 편견, 선입견, 미성숙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철학적 운동: 계몽 p132~133

네 가지 우상: 종족의 우상, 동굴의 우상, 시장의 우상, 극장의 우상 p133

계몽주의로 인간은 이성을 찬란하게 발할시켰지만, 나치즘과 원자폭탄을 경험 p134

계몽주의 부작용 대표 인물: 아돌프 아이히만 p136

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의 원인은 단일하지 않음 p137

개발 초기 단계부터 차별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하고 책임있는 설계하기: **윤리적 설계**

인공지능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**다양성**을 존중하고, **포용적**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

칼 마르크스의 노동: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의 형태를 자신의 생활에 유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외부의 자연을 변화시킨다 p143~144

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도구를 매개로 자연을 변형 생성하는 행위: **노동**

노동은 생명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간의 기초적 활동: p145

목수의 작업도, 정치적 행위도 노동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: 산업화 이후 자동화 때문 p145~146

인간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을 추구한다 p146

현대 사회는 임금노동과 고용중심 사회 p146

포스트노동 시대에 인간과 기계는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상호 수평적 관계로써 이해되어야 함

인공지능은 구조적이고 논리, 분석, 통계에 강하다 p148

포스트 노동의 대안 중 하나: **기본소득과 기여소득** p150

모든 것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는 사회: **초연결사회**

제러미 제프킨: 한계비용 제로 p157~158

기존의 상업경제와 공유경제의 차이: p158

공유경제 특성 5 가지: 시장기반성, **고효율적 자본 이용**, 중앙 집중적 조직, **사적인 일과 직업적 업무의 경계 모호화**, 정규직과 임시직 종속적 고용과 독립적 고용 또한 일과 여과 등등 사이의 경계 모호
p159

기존 경제와 공유경제 시스템 비교 표: p160

공유경제 **피어 투 피어 P2P** 협력자 p161

공유경제 문제: 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과 일자리의 축소: p163

초연결사회 문제: 디지털 식민지, 권력과 정보의 독점과 집중화, 부의 집중화, 빈부격차 증가 p167

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과 문제 p176

환경오염 대표적 이유: **인구 증가**

오존층 파괴, 지구온난화, 해수면 상승

환경 오염이 더욱 심각해진 원인: **인간 중심 주의** p180

생태학적 책임윤리: 전(全) 자연과 전(全) 미래를 책임

현대 기술은 윤리학의 대상임

현대 기술이 윤리학의 대상이 되는 이유: **결과의 모호성, 적용의 강제성, 시공간적 광역성, 인간중심적인 파괴, 형이상학적 물음의 제기** p182~183

대안: **지속 가능한 발전**